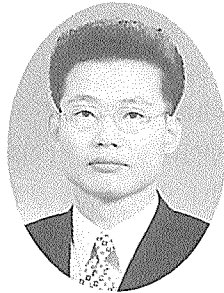


'97년보다 더 나은 '98년을 기대하며



이 경 일

〈 SK주식회사 사장실 석유사업담당팀 과장 〉

『바』

람이 분다. 살아야 한다』

- 폴 발레리 -

요즈음에 딱 맞는 식귀절이다. 부도 도미노와 환율 급등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석유업계에는 가격 자유화로 시작된 바람이 잦아지기는 커녕 태풍으로 변해 버린 느낌이다.

월드컵 축구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 등 체내 물질이 증가됨에 따라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온갖 성인병 인자가 더욱 활개를 치게 된다고 한다. 물가는 하늘로 치솟고,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고, 출퇴근 시간에 겪는 교통전쟁이나 대기오염이 심각한데도 우리가 이미 만성이 되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임계점을 초과한 것

인지 그저 무덤덤하기만 할 뿐이다. 그런 것들을 화제로 올리는 것 자체가 또하나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인가?

현재의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나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올해를 돌아 보고자 한다.

결혼 8년째이자 입사 9년째인 올해초, 나는 몇가지 목표를 세웠다.

「가정에 충실하자」, 「일도 잘하고 노는 것도 잘하자」,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자」 등이었다. 올해가 다 가버린 지금, 결론적으로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게 없다.

「간 큰 남자 시리즈」를 듣고 아무 생각없이 마냥 웃어제낄 만큼 진짜로 간이 큰 샐러리맨들



은 그리 많지 않다. 예전 한 조사에 따르면,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기억한다는 직장인들이 90년에 50%였던 반면에 '93년에는 85%로 놀라운 신장율을 보여준다.(아내의 생일을 기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큰 맘먹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늘어지게 잠 한번 자고 싶은 게」 소망이면서도 62%의 남성 직장인들은 지친 몸을 달래며 휴일을 가족들에게 투자한다.('90년 42%) 이런 노력으로 22%의 남편들이 아내들로부터 「백점가장」이라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90년에는 3.9%)고 하는데, 벌써 4년이나 지난 조사결과이니 만큼 '97년에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 졌을 테지만, 나는 모든 항목에서 예외다. 마치 큰 간을 항상 달고 다닐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세상 남편들중에서 최후의 보루로 남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

두번째, 「일도 놀이도 잘하자」 즉, 노는 것은 신세대에 가깝게, 일은 현세대를 닮아가는 것이었는데, 새로운 놀이 개발도 일중독증상을 보이지도 못한 것을 보면 이것 또한 낙제점이다.

어색한 모방은 주책으로 평가받기 쉽다. 힙합 스타일 옷을 사입으려 해도 「당신 나이를 생각해 봐」라는 아내의 말에 결국 결행에 옮기지 못하고 마는 나. 지금 신세대는 일하기 보다는 놀고 소비하기를 즐기는 배짱이라는 흑평도 있지만, 신세대는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를 뒤엎는 가치혁명을 진행중인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으로 상징되는 현대과학기술 문명속에서 기성세대는 왜소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었으며, 신세대들은 과거의 신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성세대의 경험과 지혜에 기대려고 하지 않는다. 걸 멋에 취한 채 단세포적인 부정과 파

괴만을 능사로 아는 어리석은 신세대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할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All or Nothing)를 정하는 비장한 선택보다는 신진 기예들의 최신 이론과 패기, 백전노장들의 경험과 배짱을 동시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걸모양만 변화해서는 과대포장 또는 요란한 빈수레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不怕沒有機會，只怕沒有準備好

(기회가 없음을 두려워 하지 말고, 오직 준비를 잘하지 못했음을 두려워하라) -중국 격언 -

3년 전에 시작한 중국어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을 보면 이 세번째 항목은 조금 후한 점수를 받아도 괜찮을 듯 싶다. 21세기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직장인에게 이제 어학은 차라리 「종교」가 되었다. 이제 어학능력은 우리 당대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어학이 두뇌활동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치매 예방에도 지극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어학에서는 빨리 빨리 방식과 대충 대충이 통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훌륭한 자기 수양법이 될 수도 있다. 이제라도 이처럼 일석삼조 어학공부를 시작해 보시는게 어떠신지?

어쩌든 '97년은 세운 목표에 비해 전체적인 달성은 크게 미흡한 것 같다. 따라서 나의 '98년 중점실천과제는 '97년과제를 그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어느새 연말이 되었다. 술과 가까이 할 기회가 어느 때보다 많아지는 이때에 자신이 마시는 술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효용을 판단하면서 술을 절제하는 것이 활기찬 '98년을 맞는 최소한의 준비가 아닐까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